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Bullying Defenders on Bullying Behavior: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박소현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Hyun Park(362ja@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 2학년 488명이다. 분석을 위해 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평균차이 검증과,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변수를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가해자 동조경험과 방관자 동조경험이 많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가해자동조와 방관자동조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감능력은 가해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관계와, 방관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고, 학년이 높을수록 방관자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과, 학문적 제언과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 중심어 : | 집단따돌림동조유형 | 집단따돌림가해행위 | 공감능력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test whether middle school students have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on group bullying behavior. The subjects were 488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rea, The mean difference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0 program and the related variables were standardized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experienc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experience of the autonomous group, the group bullying behaviors were highe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petrators were important variables for predicting the bullying behaviors. As a predictor of bullying behavior, it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variable. Second, empathy ability has a moderating effect of allev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or's harmony and bullying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nlooker and bullying behavior. Third, according to gender analysis, male students were more exposed to bullying behaviors than female students. Through these discussions, practical suggestions for social welfare, academic sugges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 keyword : | Type of Group Bullying | Bullying Behavior | Empathy Ability |

* 본 원고는 박소현(2016)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12월 15일

수정일자 : 2017년 0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05일

교신저자 : 박소현, e-mail : 362ja@hanmail.net

1. 서론

요즘의 우리사회는 학교, 군대, 직장 등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집단따돌림”현상이 넓게 퍼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의 피해 사건이나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은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여러 해가 지나고 있는 지금, 집단따돌림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의 질과 양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따돌림현상은 비행청소년이 아닌 일반학생들 사이에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도덕적인 책임감 없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지고 있고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으로 드러났다[1][2].

집단따돌림 가해를 경험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정상적인 청소년에 비해 약 4배정도 높게 나타난다[3]. 또한 중학교시기의 또래 괴롭힘 가해학생의 60%가 24세까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괴롭힘 가해현상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심각함을 시사한다[4]. 심하게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정신 병리적인 문제나 자살이라는 극한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5].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양상에서는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중복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오히려 가해를 통해 복수하려는 충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가해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자 10명중 7명이 모멸감, 분노, 억울함, 증오로 보복심리를 보이고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2차 피해우려가 높아지고 있다[7].

[8]는 집단따돌림 유형을 가해자, 피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로 6가지로 분류하였다. 가해자동조집단 및 방관자집단은 괴롭힘에 동참하거나 묵인하는 형태로 집단따돌림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따돌림의 동조자나

방관자에서 가해자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단따돌림 동조자나 방관자에서 가해자로 전이되는 과정을 차단하려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따돌림의 동조 및 방관경험이 가해행위로 전이되는 과정에서의 변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Rogers(1951)는 인간관계의 핵심요건 중 공감을 강조하였고, [9]는 관계초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관심과 경청, 이해를 통한 공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매력의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10]는 그의 연구에서 공감이 여러 가지 친사회적인 행동인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이타행동 등과 상당한 정적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밝히면서 공감은 교육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1]는 도덕성이 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12]는 공감이 사회불안수준과 왕따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3]는 공감과 또래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감을 또래가해행동의 완화요인이라는 연구를 하였다. [14]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부족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여 가해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하지만 집단따돌림에 동조하는 유형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이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개인의 공감능력에 주목하고, 집단따돌림에 대응하는 개인의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가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실증해 보고자 한다. 집단따돌림 동조경험과 집단따돌림의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각 하위요인별로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집단따돌림 동조경험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집단따돌림 동조유형 및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는 어떠한가?
- 2) 집단따돌림 동조경험 유형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서 공감능력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동조경험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가해자 동조경험은 따돌림상황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조태도는 가해자들에게는 자신의 따돌림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6]. 자기방어적인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는 친구집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기 친구관계에서의 동조성(Conformity)은 청소년의 사회성과 친한 친구에 대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동조성은 또래의 집단행동을 따라하는데 영향을 미친다[6]. 즉, 청소년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사회관계와 통합적인 부분을 이루고, 정서적인 발달과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5].

선행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피해자동조행동을 많이 보이고, 내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가해자동조행동, 방관자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15]. 동조집단의 증가는 따돌림현상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따돌림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3][7]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52.6%이상이 또래 괴롭힘에 나서지 않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방관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과 방관자들의 역할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교는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 따라서 학교의 대다수 인원인 72%[22]를 차지하는 동조나 방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집단따돌림을 형성하는지는 집단따돌림의 발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자동조경험은 집단따돌림의 가해행위에 원인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집단따돌림 방관동조경험과 집단따돌림가해행위 방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

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도와주거나 암묵적인 지지를 제공하여 집단따돌림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6]은 방관자집단을 자기방어, 무관심, 쌍방과오의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무관심은 따돌림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평소대로 행동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무관심을 공감능력의 부재[20]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 쌍방과오는 따돌림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잘못이며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집단따돌림을 제지하는데 보상이 적거나 집단따돌림행위에 보상이 더 클 경우에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하게 되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방관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17].

[18]는 방관자의 공감수준은 가해동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피해자, 방어자에 비해 낮은 공감능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집단 괴롭힘을 모른척하고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방관자는 학급 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19]. 집단따돌림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그 규범에 맞서서 싸우기 보다는 규범에 맞게 스스로의 행동을 고쳐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21]. 또한 집단따돌림이 확산되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학교에서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데 이것은 [3]의 사회적 “전염”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관자는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으면서 자기방어와 무관심 쌍방과오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집단따돌림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방관자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방관자가 따돌림에 동조한다고 생각하여 피해를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학급의 72%가 방관자라는 보고[22]는 방관자 집단이 집단따돌림 연구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며 집단따돌림 해결에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정책과 법규에서도 방관자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 되었다[23]. 이후 방관자에 대한 연구는 집단따돌림을 집단현상으로 보려

는 관점에서 [24]를 주축으로 발전하였다. 집단따돌림에서 방관자의 무관심을 줄일 수 있다면, 집단따돌림은 반드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관자는 집단따돌림상황에서 가해자를 돕거나 가해행위에 긍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방관자 존재 자체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괴롭힘이 수용되고 인정되며 심지어는 존경받고 있다고 잘못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괴롭힘 상황의 반복과 악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괴롭힘 상황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관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같이 있어주거나 나아가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여 가해행위를 반대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가 느끼는 사회적 승인은 줄어들고 괴롭힘 행동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3. 집단따돌림 피해동조경험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피해자동조는 따돌림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유형으로 이들이 하는 행동은 타인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위로해주기' '격려해주기' '도와주기' '옆에 있어주기'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따돌림 상황에서의 가해자들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며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25].

[26]는 동조집단이 피해자를 지지할 때 집단따돌림이 효과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급의 급우들이 피해 집단을 방어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빈도가 낮다[27]. 이는 동조집단의 행동이 집단따돌림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피해자 방어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해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와 학급의 구성원이 소그룹을 지어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감시하는 활동이 보고되면서 동조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6]. 따라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동조나 방관경험자들이 피해자를 지지하여 방어자 역할을 할 때, 집단따돌림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4. 공감능력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공감은 상대방의 내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과 더불어 공감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28]. [29]는 공감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관계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30]는 공감을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31]는 공감을 네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고 이를 통해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감을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인 고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동정, 투사, 동일시와는 구별되며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며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며 의사소통하는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2]는 공감능력을 인지적, 정서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래 괴롭힘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낮은 공감능력을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13][33]. 즉 공감능력이 발달한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발생을 억제시키며, 또래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공감적 이해가 낮다고 한다. 또한, 학생의 개인 환경적 배경변인보다 공감능력이 또래 괴롭힘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13].

III. 연구방법

1. 대상자

본 연구대상 표집방법은 부산시내 거주하고 있는 4개의 중학교를 선정하여, 1,2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설문지의 내용이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하고 48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2.1 집단따돌림 동조경험 척도

집단따돌림 동조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1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자 동조경험은 가해자 지지3문항, 상황 동조5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고 방관자 동조유형 3요인 19문항, 피해자 동조유형 2요인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해자 동조유형의 하위요인은 가해자지지 3문항, 상황 동조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관자 동조유형의 하위요인은 자기방어 8문항, 무관심 6문항, 쌍방과오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경험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해자동조 14문항 Cronbach's α 값은 .897, 방관자동조 6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90, 피해자동조 4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87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집단따돌림의 가해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34]이 직접 제작한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척도 중에서 가해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대화의 광장[35], 서울시교육청[36]의 조사결과에 의해 파악된 3가지 유형별(소외형, 언어형, 신체형)로, 각각 4문항씩 분포시켜 '가해항목' 12문항을 선정한 것이다.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하위척도는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척도의 하위문항을 모두 합하여 사용했으며, 이들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87로 나타났다.

2.3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Davis[31]가 제작한 IRI 검사, [37]이 재구성한 정서공감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감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5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0을 통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관련 변수들의 평균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따돌림 동조경험과 공감능력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집단따돌림 동조경험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가 나타난 회귀식은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 1 일 때의 종속변수 값을 산출하여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식화시켜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 52.9%(258명), 여학생 47.1%(230명)로 나타나, 남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43.4%(212명) 2학년이 56.6%(276명)로 나타나 2학년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검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1]은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해자 동조	488	1.00	4.00	1.89	.57
방관자 동조	488	1.00	4.00	2.06	.71
피해자 동조	488	1.00	4.00	2.49	.77
공감능력	488	1.33	5.00	3.59	.63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488	1.00	4.67	1.59	.59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경험 차이

1)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경험

[표 2]는 성별에 따른 따돌림 동조경험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가해경험에서는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5, p<.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따돌림 동조경험과 가해경험은 중학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유의하게 높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에 따돌림 동조경험과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의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집단따돌림 동조 경험	가해자 남자	258	1.93	.61	1.25
	동조 여자	230	1.86	.53	
	방관자 남자	258	2.09	.73	1.07
	동조 여자	230	2.02	.68	
가해 경험	남자	258	2.51	.79	.75
	여자	230	2.46	.74	
가해 경험	남자	258	1.69	.67	3.85***
	여자	230	1.49	.46	

** $p<.05$, *** $p<.001$

3) 학년에 따른 집단따돌림 경험

[표 3]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집단따돌림 경험변인 중 통계적 유의한 것은 방관자동조로서 2학년이 1학년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방관동조경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t=-3.18, p<.01$).

표 3. 학년에 따른 집단따돌림동조경험

변수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집단 따돌림동 조 경험	가해자 1년	212	1.86	.57	-1.11
	동조 2년	276	1.82	.57	
	방관자 1년	212	1.95	.72	-3.18**
	동조 2년	276	2.15	.68	
가해 경험	1년	212	2.53	.78	1.03
	2년	276	2.45	.76	
가해 경험	1년	212	1.61	.55	.44
	2년	276	1.58	.62	

** $p<.05$, *** $p<.001$

3. 주요변수에 따른 차이 분석

1) 가해자 동조경험에 따른 차이

[표 4]는 가해자 동조경험의 평균을 고, 저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공감능력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평

균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해자 동조경험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은 낮고($t=3.99, p<.001$), 집단따돌림 가해행위($t=-7.81, p<.001$)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가해자동조경험에 따른 공감능력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의 차이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 편 차	t
공감 능력	가해자동조 낮은집단	256	3.69	.65	3.99***
	가해자동조 높은집단	232	3.47	.59	
집단 따돌림 가해 행위	가해자동조 낮은집단	256	1.40	.41	-7.81***
	가해자동조 높은집단	232	1.81	.68	

** $p<.05$, *** $p<.001$

2) 방관자 동조경험에 따른 차이

[표 5]는 방관자 동조경험의 평균을 고, 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방관자 동조경험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에서의 공감능력 평균은 $3.79(\pm.62)$ 이고, 방관자 동조경험이 높은 집단의 공감능력 평균은 $3.39(\pm.58)$ 로 나타나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7.14, p<.001$). 다음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서 방관자 동조경험이 높은 집단의 가해행위 평균은 $1.73(\pm.65)$ 로 나타나, 낮은 집단($M=1.45, SD=.48$)에 비해 가해행위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 -5.44, p<.001$).

표 5. 방관자동조경험에 따른 공감 및 가해행위 차이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공감 능력	방관자동조 낮은집단	240	3.79	.62	7.14***
	방관자동조 높은집단	248	3.39	.58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방관자동조 낮은집단	240	1.45	.48	-5.44***
	방관자동조 높은집단	248	1.73	.65	

** $p<.05$, *** $p<.001$

3) 피해자 동조경험에 따른 차이

[표 6]은 피해자 동조경험을 평균을 중심으로 고, 저로 구분한 다음 집단 간 공감능력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피해자 동조경험이 낮은 집단의 공감능력 평균은 3.39(±.62)로 피해자 동조경험이 높은 집단의 공감능력은 평균 3.76(±.59)로 나타나, 피해자동조경험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65, p<.001$).

표 6. 피해자동조경험에 따른 공감 및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차이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공감 능력	피해자동조 낮은집단	225	3.39	.62	-6.65***
	피해자동조 높은집단	263	3.76	.59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피해자동조 낮은집단	225	1.62	.56	.83
	피해자동조 높은집단	263	1.57	.61	

** $p<.05$, *** $p<.001$

4) 공감능력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차이

[표 7]은 공감능력의 평균을 중심으로 고, 저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3.90, p<.001$).

표 7. 공감능력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차이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공감능력 낮은집단	261	1.69	.56	3.90***
	공감능력 높은집단	227	1.48	.60	

** $p<.05$, *** $p<.001$

표 8. 측정변인의 정상성 분포 및 상관분석

	가해자동조	방관자동조	피해자동조	공감능력	집단따돌림가해행위
가해자동조	1				
방관자동조	.679***	1			
피해자동조	-.062	-.180***	1		
공감능력	-.208***	-.320***	.361***	1	
집단따돌림가해행위	.462***	.318***	-.062	-.190***	1
왜도	.536	.082	.089	-.032	1.626
첨도	.145	-.608	-.373	.187	3.212

* $p<.05$, ** $p<.01$, *** $p<.001$

3.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1. 주요변수의 정상성 분포 및 상관관계 분석

우선, 측정변수들의 정상성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제시한 [표 8]을 보면 모든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상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독립변수인 집단따돌림 동조경험과 종속변수인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의 상관성을 보면 가해자동조와 방관자동조는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동조와 공감능력과는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동조는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통계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동조($r=.462, p<.001$)와 방관자동조($r=.318, p<.001$) 그리고 공감능력($r=-.190, p<.001$)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 및 방관자에 대한 동조경험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유의하게 높으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 동조경험과 공감능력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1) 가해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표 9]은 가해자 동조경험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성별에서 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F=7.375, p<.01$), 다음 모형 2에서는 투입된 변수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회

표 9. 가해자동조가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공차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1.957***	.122		1.283***	.190		1.329***	.191		
성별(기준:남)	-.203***	.053	-.171	-.153**	.048	-.133	-.159**	.048	-.134	.949
학년(기준:1학년)	-.038	.054	-.032	-.058	.048	-.049	-.058	.048	-.049	.989
가해자동조(a)				.457***	.042	.443	.443***	.042	.429	.929
공감능력(b)				-.064	.039	-.068	-.066	.039	-.070	.911
상호작용(a×b)							.045*	.021	.085	.975
F	7.375**			38.321***			31.778***			
R ² (adj R ²)	.030(.030)			.241(.211)			.248(.007)			
F(Sig.)	7.375**			67.253***			4.495*			

<.05, *p<.001

귀방정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8.321, p<.001),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24.1%로 21.1%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모형 3은 성별과 학년 그리고 가해자동조경험, 공감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가해자동조와 공감능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것이다. 그 결과 투입된 변수의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1.778, p<.001), 투입된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4.8%로 나타나 이전 단계에 비해 0.7%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모형 3의 투입된 변수 중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는 성별(b=-.159, p<.01), 가해자동조경험(b=.443, p<.001), 상호작용 항(b=.045, p<.05)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동조경험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가해자동조에 의한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공감능력은 가해자동조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방관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표 10]은 방관자동조경험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검증한 결과이다. 우선 모형1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한 것으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7.375, p<.01), 통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로 나타났다. 모형 2는 통제변수에 더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626, p<.001), 투입된 변수의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13.4%로 이전 단계에 비해 10.4%(p<.00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유의하게 높으며(b=-.174, p<.01), 방관자 동조경험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주었다(b=.253, p<.001). 모형 3은

표 10. 방관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공차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1.957***	.122		1.665***	.204		1.765***	.205		
성별(기준:남)	-.203***	.053	-.171	-.174**	.052	-.146	-.182***	.051	-.153	.945
학년(기준:1학년)	-.038	.054	-.032	-.085	.052	-.071	-.083	.051	-.069	.965
방관자동조(a)				.253***	.038	.302	.227***	.038	.271	.831
공감능력(b)				-.056	.043	-.060	-.060	.043	-.064	.847
상호작용(a×b)							.071**	.023	.133	.948
F	7.375**			18.626***			17.072***			
R ² (adj R ²)	.030(.030)			.134(.104)			.150(.017)			
F(Sig.)	7.375**			29.025***			9.359**			

<.05, *p<.001

이전단계에 방관자동조와 공감능력을 센터링시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7.072, p<.001$), 투입된 모형의 설명력은 15%로 이전 단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증가를 보였다($p<.01$). 투입된 변수 중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유의하게 높으며($b=-.182, p<.001$), 방관자동조경험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유의하게 높으며($b=.227, p<.001$), 공감능력이 방관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1, p<.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방관자동조경험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완화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피해자동조경험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한 결과, 투입된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에 거쳤고, 이러한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피해자동조에 대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동조경험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은 집단따돌림의 하위변인 중 가해자 동조와 방관자 동조에서만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을 보면 가해자동조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높아지는데, 공감능력이 높을 경우는 가해행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감능력에 따라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조절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방관자동조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높아지는데, 공감능력이 높을 경우 방관자 동조가 낮고, 높음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행위가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감능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 크기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감능력이 방관자동조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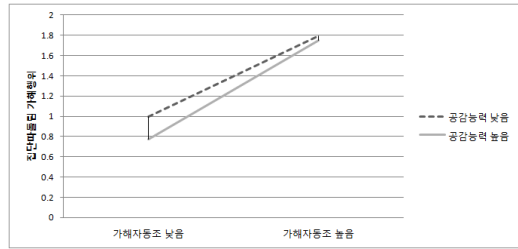


그림 1. 가해자동조경험과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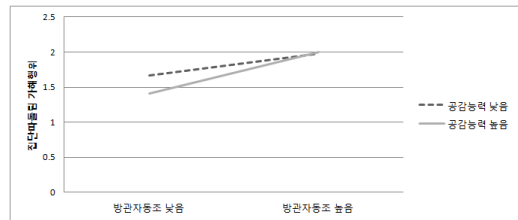


그림 2. 방관자동조경험과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이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집단따돌림동조 및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주요결과에서는 가해자동조경험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은 낮아지고 가해행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동조경험과 가해행위 관계에서 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방관자동조경험이 많을수록, 가해행위는 많아지고 공감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피해자 동조경험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은 높아지고 가해행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은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동조에서 멀어지면서, 방관자 역할로 나아감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집단따돌림 특성에서는 2학년이 1학년보다 방관자 동조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고 피해자동조와 가해자 동조에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동조수준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성별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로 가해동조가 높을수록, 가해행

위가 높은 특성을 보여, 가해행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해행위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방관자로 있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는 가해와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특성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6]. 가해자동조 태도는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며 가해자 동조행위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행위와 동일한 경험으로 인식된다고 한 연구[22]와 일치한다. 또한 동조성은 집단의 압력에 의한 집단행동에 따라가도록 영향을 미친다는[6]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가해자동조와 방관자 동조는 집단따돌림에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해자동조 피해자동조 방관자동조 수준을 평균을 중심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에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동조가 높은 집단과 방관자동조가 높은 집단이 가해행위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방관자와 같은 소극적 동조자들이 집단따돌림에 무관심하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방관행동은 집단따돌림의 가해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3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해행동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39]와 일치한다. 이는 가해자 및 방관자 동조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피해자 동조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32]에서도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피해자동조 행동을 많이 보이며, 공감수준이 낮을수록 가해자 및 방관자 동조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가해자동조 및 방관자동조에 대해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방관자태도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및 방관자 동조현상은 집

단따돌림의 가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중요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가해자동조 및 방관자동조는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해자 동조집단은 따돌림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자를 지지하여 가해자의 권력을 함께 누리려하고 자신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와 불안한 동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방관자 동조집단은 따돌림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자기 방어적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암묵적으로는 가해자를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16]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가해자동조와 방관자동조가 높은 청소년에 대한 공감능력 증진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가해자동조가 공감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관자동조 또한 공감능력과 상호작용할 경우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서 공감능력증진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가해자 및 방관자 동조집단에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무관심은 공감능력의 부재라고 강하게 보고한[20] 결과와도 일치한다. 공감능력의 부재로 인해 집단따돌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규범에 맞서기 보다는 또래규범에 맞게 스스로의 행동을 수정하여 힘없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배제 등을 당연시하여 사회적 전염으로 확산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3]는 주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를 따돌릴 때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행동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집단따돌림에 대한 학급대상의 프로그램이나 개입전략에서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낙인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입보다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6가지유형중 가해자동조경험과 방관자동조경험은 집단따돌림 가해행위의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전이 과정이 차단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확인 하였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이 중요한 집단따돌림에 대해 가해자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보다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가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에게 구분되어진 특별대상이 아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활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집단따돌림은 반드시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편안한 학습의 분위기가 조성 된다면 작은 고민, 걱정을 나눌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건강하고 명량한 청소년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집단역동에 초점을 두어 동조자의 여러 유형들이 집단따돌림의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개 시에서 중학생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확률표집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집단따돌림의 저 연령화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1] 여성가족부, 3.30.보도, 2011.
 [2]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종합실태조사,” 2012.
 [3] D. Olweus, “bully 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 and effects of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NJ: Lawrence Earlbaum, pp.411-448, 1991.
 [4] 김보은, 최수미, “초기청소년의 도덕적 추론이 또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조성의 조절효과와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

호, pp.29-52, 2016.
 [5] 조규향, *학교 폭력 방지와 정부의 대책*, 대외심포지움, 1999.
 [6] 김희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8권, 제2호, pp.119-14, 2001.
 [7]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한울림, 2013.
 [8] C. Salmivalli, K.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and Kaukiainen, “A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Vol.22, No.1, pp.1-15, 1996.
 [9] 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1호, pp.19-38, 2010.
 [10]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1994.
 [11] 송근혜, *대학생의 도덕적 자아, 자기통제력, 공감 및 도덕적 행동간의 구조적관계분석*, 동아대 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12]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3, No.1, pp.147-162, 2001.
 [13] 신나민, “청소년또래 괴롭힘의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공감구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제14권, 제4호, pp.25-45, 2012.
 [14] 차윤희, 박경자,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역할과 사회적이해,” *생애학회지*, 제1권, 제1호, pp.47-67, 2011.
 [15] 강민주, 신은경, 강수아, “한국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심리사회적 발달관계에 관한 연구 동향분석,” *청소년학연구*, 2015.
 [16] 김현주, “집단따돌림에서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03.

[17] C. Salmivalli, "Bull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ur*, Vol.15, No.2, pp.112-120, 2010.

[18] 서미정, *또래 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주변 또래의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2006.

[19] 심희옥, "또래 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 종단 연구: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Vol.26, No.5, pp.263-279, 2005.

[20] 권유란, *특성화 고등학생용 집단따돌림 방관태도 감소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1] 윤주영,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 형제수와 출생순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2] 김연화, 한세영, "아동의 또래 괴롭힘 참여 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한국아동학회*, 제32권, 제3호, pp.19-41, 2011.

[23] C. P. Bradshaw and T. E. Waasdorp, "Measuring and changing a "culture of bullying," *School Psychology Review*, Vol.38, No.3, pp.356-361, 2009.

[24] C. Salmivalli, "Bull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ur*, Vol.15, No.2, pp.112-120, 2010.

[25] 이상미, *초등학생의 공감 및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의 차이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6] Hawkins, 2011.

[27] 이훈구, *교실이야기*, 서울: 범문사, 2001.

[28] 권정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아동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67-76, 2001.

[29] 조성호, 이희경, "공감과 마음이해 : 종합적 접근,"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15(2008, 가을호), 2008.

[30] 주경숙, "항공 및 관광서비스 전공 여대생의 공

감 능력,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0호, pp163-174, 2016.

[31] M. H. Davis,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empathy on emotional reactions and helping : A multimedia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Vol.51, pp.167-184, 1983.

[32] 신은경, "부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아탄력성," *미래유아교육학회*, 제20권, 제3호, pp.89-112, 2013.

[33] 곽금주, "한국의 왕따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2008.

[34] 최은숙, 채준호,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인간이해*, 제21권, 제0호, pp.109-136, 2000.

[35]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 문제 토론광장," *한국청소년 상담원*, 1999.

[36] 서울시교육청, 1999.

[37] 전병성,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8] I. Whitney and P. K Smith,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Vol.35, No.1, pp.3-25, 1993.

[39] 윤성우, 이영호 "집단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 지지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pp.271-291, 2007.

저 자 소 개

박 소 현(So-Hyun Park)

정희원



- 2016년 2월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학위)
- 2016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 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 학교폭력